<서평>

Perspectives on the Ending of Mark: 4 Views

David Black
Nashville: B&H Academic, 2008, 145p.

양재훈*

1.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논란의 역사는 마가복음의 탄생의 역사와 거의 시점을 같이 한다.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끝은 네 가지로, 16:8에서 끝을 마치는 유형과 흔히 긴 끝(Longer Ending, LE)이라고 부르는 16:9-20을 포함한 유형, 보비엔시스 사본(Codex Bobbiensis, it^k)이 전하는 짧은 끝(Shorter Ending, SE), 그리고 긴 끝에 해당하는 16:14과 15절 사이에 한 문단 정도의 내용이 첨가된 프리어 로기온(Freer Logion, FL) 등이 있다. 물론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사본의 유형으로 확대되지만[1] 큰 틀에서 보면 이와 같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긴 끝을 마가복음 정경의 일부로 포함시켰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성경은 16:20에서 끝나는 마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19세기 이후 성서 비평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대부분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엘리엇(J.K. Elliott)은 이와 관련한 사본의 유형을 크게 다섯으로 나누며[*The Language and Style of the Gospel of Mark: an Edition of C.H. Turner's 'Notes on Marcan Usage' Together with Other Comparable Studies* (Leiden; NY; Koln: E.J. Brill, 1993), 204-205; idem, "The Text and Language of the Ending to Mark's Gospel," *TZ* 27, 1971], 255-262. 토마스[J.C. Thomas, "A Reconsideration of the Ending of Mark," JETS 26/4 (1983), 407-408]는 여기에 Codex Washingtonianus(W)를 포함하여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원래의 끝이 16:8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권위 있는 오래된 사본인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과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이라는 것도 한몫 한다. 따라서 이후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연구는 16:8에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모아졌다. 오늘날 많은 마가복음 학자들은 16:8에서 끝나는 마가복음을 원래의 마가복음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간간이 들려왔다. 그러나 8절 이하로 넘어가는 마가복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8절에서 마가복음을 멈추게 하려는 다수의 목소리에 파묻혔다.

이 책은 8절에서 마가복음을 끝내려는 많은 목소리의 볼륨을 좀 줄이고 다른 목소리들의 볼륨을 높여 8절의 끝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목소리를 여러 목소리 가운데 하나로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원래 2007년 4월에 미국의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e Last Twelve Verses of Mark: Original or Not"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하여 만든 책이다.

이 책에 글을 실은 저자들 대부분은 본문 비평과 사본 연구에 전문가들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사본학과 본문 비평에 대한 많은 식견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구성일지도 모른다. 이들이 쓴 글들은 모두 다섯 꼭지인데,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글들은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각각 다른 의견들을 주장하고 있다. 처음 네 꼭지는 저자들이 생각하는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논지를 펴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글은 앞의 네 글들에 대한 종합 토론, 비평을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마가복음 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받고 각 의견들에 대한 전문가의 예리한 비평까지 겸해서 볼 수 있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2. 내용 구성

먼저 이 책의 처음 네 개의 논문들은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제일 먼저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왈리스(Daniel B. Wallace)는 마가복음이 16:8에서 끝난다는 주장을 편다. 둘째 글을 쓴 로빈슨(Maurice A. Robinson)은 긴 끝이 원래 마가복음이라는 주장 즉, 원래 마가복음이 16:20에서 끝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주장한다. 셋째 글은 마가복음 끝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인 엘리엇(J. K. Elliott)이 쓴 글인데, 엘리엇은 마가복음의 원래의 끝이 사라졌다는 유실설(lost-ending theory)을 편다. 넷째로 블랙(David A. Black)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후대에 자기가 썼던 원래의 마가복음을 다시 보강하여 거기에 긴 끝을 덧붙였다는 주장을 편다. 마지막 5장의 글은 복(Darrell L. Bock)이 앞의 네 의견을 비판하고 정리한 글이다.

각각의 논지를 펴는 네 개의 글 가운데 처음 세 개의 글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방법론적 틀을 사용한다. 먼저 사본학적인 접근과 초대 교부들의 증언 등과 같은 외부적 증거(external evidence)를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한 이후 마가복음의 어휘나 문체 스타일, 문맥 등과 같은 마가복음의 내부적 증거(internal evidence)들을 다뤄 자신들의 의견을 펴고 있다. 네 번째 글을 쓴 블랙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초대 교회의 역사적 배경들을 시대적으로 정리하면서 공관복음서 문제(Synoptic Problem)를 다뤄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2.1. 의도된 끝

첫째 글 "Mark 16:8 as the Conclusion to the Second Gospel"에서 왈리스는 16장 8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복음서의 끝이

라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외부적 증거 차원에서 마태 우선설을 주장하는 파머(William Farmer)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긴 끝의 비정통성(inauthenticity)[2]을 주장한다. 그는 파머가 말하듯이 9절 이하의 증언이 다른 복음서들의 증언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또한 긴 끝에서 언급하는 기적도 초대 교회에서 당혹스러운 것이었기에 긴 끝을 삭제했다는 가설을 비판하면서, 9절은 누가와 요한복음과 일치하며 도리어 마태복음이 차이를 보이므로 복음서 증거의 차이가 문제라면 삭제되어야 할 것은 긴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당혹스러운 기적이 문제였다면 초대 교회가 그 기적 부분만 삭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왈리스는 긴 끝이 삭제되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후대 사람들이 긴 끝을 첨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긴 끝을 후대에 첨가한 이유는 8절에서 끝나는 원래 마가복음에는 부활 현현이 없었고,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후대에 이 장면이 있는 긴 끝을 첨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왈리스는 짧은 끝(SE)에 대해서도 외부적 증거를 가지고 논증한다. 그는 권위 있는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뿐만 아니라 많은 사본들, 유세비우스나 제롬 등이 8절을 끝으로 하는 마가복음을 지지하며, 보비엔시스 사본과 같이 짧은 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8절에서 끝나는 불만족스러운 원래의 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사본들이 8절에서 끝나는 마가복음을 언급하면서 다른 끝이 있다는 것을 각주나 별표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볼 때 원래 마가복음이 8절의 불만족스러운 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왈리스는 원래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며 긴 끝과 짧은 끝의 첨가라든지 별표 등과 같은 표식은 부활 현현이 없는 원래 마가복음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

2) 정통성(authenticity)-비정통성(inauthenticity)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마가복음(1:1-16:8)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의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뜻한다.

둘째로 왈리스는 내부적 증거로 어휘, 구문, 스타일, 문맥의 흐름을 골고루 다뤄야 하며 파머의 경우 어휘에만 치중해 긴 끝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글이 "gar"로 끝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예를 보여준 마그네스(Magness)의 연구를 빌어서 반론을 펼친다. 끝이 잘려나갔다는 가설로 8절 너머의 끝을 주장하는 가설에 대해서도 마가의 저술 연대를 볼 때 코덱스가 아닌 두루마리 형태를 생각해야 하고, 이 경우 그런 가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8절의 끝맺음이 문학적 효과를 노렸다는 의견은 현대인의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옛날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8절의 의도된 끝을 주장한다.

2.2. 긴 끝의 정통성(authenticity)

로빈슨은 "The Long Ending of Mark as Canonical Verity"에서 긴 끝이 원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원래의 끝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도 마찬가지로 외부적 증거와 내부적 증거를 각각 다루는데, 외부적 증거로써 그는 기존 학자들이 내세우던 유세비우스나 제롬, 안디옥의 빅터 대신에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과 이레네우스의 증거로 긴 끝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먼저 저스틴은 "having gone forth, preached everywhere"라는 세 단어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16:20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것은 긴 끝이 마가복음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둘째로 이레네우스는 2세기 말에 자신의 글에서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가복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레네우스는 마가복음의 끝의 범위를 긴 끝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이것은 시내사본, 바티칸 사본, 유세비우스, 제롬, 빅터 등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증거이며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 증거들은 긴 끝이 처음부터 마가복음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로빈슨은 주장한다. 그는 긴 끝이 다른 복음서를 요약하여 빌려온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짧은 끝은 예배 의식의 목적을 위해서 긴 끝 부분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로빈슨은 내부적 증거로서 스타일, 어휘, 주제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긴 끝과 같이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을 논하면서 어휘를 가지고 정통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각설한다. 대신 그는 주제의 문제를 다루는데, 예언과 성취 모티브, 엘리야 모티브에 있어서, 또한 처음 부분(1:32-39)과 끝 부분(LE), 3, 6, 7-8과 16장 사이에서 긴 끝이 마가복음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내세우면서 긴 끝과 16:8 이전의 마가복음 사이에는 주제적인 흐름에서 서로 통일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2.3 잃어버린 끝

셋째로 엘리엇의 "The Last Twelve Verses of Mark: Original or Not?"은 마가복음 16:8이 원래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했던 끝이 아니며, 그 이후에 무엇이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유실되었다는 잃어버린 끝(lost-ending theory) 이론을 펼친다. 그는 먼저 외부적 증거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바티칸 사본 마지막 부분의 여백의 부분을 주목하면서 아마 바티칸 사본의 필사가가 베끼던 원본에는 긴 끝이 있었을 것이며 이 필사가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습은 후대 필사가들이 남긴 별표나 "obeli"에도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필사가들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끝부분의 여백 "Armenian MSS 21932" 같이 7, 8절을 큰 글씨로 써서 공백을 조절하는 흔적들은 필사가들이 이 끝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택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엘리엇은 말한다.

엘리엇은 시내 사본에서도 외적 증거를 문제 삼는다. 8절로 끝나는 시내 사본의 마가복음 끝은 이 사본의 세 필사가 A, B, D 중에서 D의 손길인데, 이 D 필사가는 바티칸 사본의 두 필사가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가의 끝과 관련해서 의도된 끝으로 8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 두 개의 증거는 사실상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으며, 이 두 사본과 관련한 마가의 끝에 대한 외적 증거는 따라서 분명하지 않다고 엘리엇은 주장한다.

다음으로 엘리엇은 마가복음 본문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잃어버린 끝을 주장한다. 그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단어들을 분석하면서 8절 같이 끝내는 저자는 없으며, 따라서 8절 이후 부분은 분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내용과 신학적 측면에서도 엘리엇은 긴 끝은 8절 이전에서 끝나는 마가복음과 언어도 다르고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나며, 이것은 후대 저자가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의 끝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가 첨가했기 때문이라고 엘리엇은 주장한다.

엘리엇은 서방 복음서들의 순서는 마태, 요한, 누가, 마가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마가복음의 긴 끝을 이 모든 복음서들에 나오는 부활이야기의 요약이라고 본다. 특히 8절로 마가복음이 끝났다면 이러한 목적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긴 끝이 사용된 것이고, 이 긴 끝은 마가복음에 붙어서 나중에 마가복음이 둘째 순서로 자리바꿈을 한 후에도 여전히 마가복음에 붙어있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또한 엘리엇은 8절에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 저자가 문학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마가가 그렇게 치밀한 저자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가 내리는 결론은 원래 8절 뒤에 원래의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유실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을 대체하는 다른 끝들이 생겼으며, 이후에 대부분의 후대 사본들은 이러한 대체적인 끝들을 받아들여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 분실된 끝에 있었을 법한 내용으로 베드로에게 부활 현현하는 이야기를 제안한다.

2.4. 마가의 후대 보강물로써 긴 끝

블랙은 공관복음서 문제를 가지고 긴 끝이 마가복음의 원래 저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앞선 저자들과는 달리 외부적, 내부적 증거로 접근하지 않고 교회 역사를 다루면서 공관복음서의 문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 그는 공관복음서들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 단계의 시대적 흐름을 제시한다. 1단계 시나리오는 예루살렘 단계로, 서기 30-42년의 기간이며 사도행전 1-12장의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필요를 느꼈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 공동체들 편에서 복음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이다. 2단계 시나리오는 이방인 선교 단계로 서기 42-62년의 기간이며 사도행전 13-28장의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누가복음이 탄생하게 되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는 마태복음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자신만의 자료를 보강하여 누가복음을 저술했다는 것이다.

3단계 시나리오는 서기 62-72년이며 이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접촉한 단계이다. 누가복음이 세상에 나오기에는 당시에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한 유대적 배경 집단의 반발이 있었고 또한 바울과 누가 모두 직접적인 목격자 증인이 아니었으므로 누가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했다. 때마침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였고 로마 지역 교인들을 위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부분은 모두 5개의 부분이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2-16:8 부분이라고 블랙은 주장한다.

따라서 블랙은 마태복음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누가복음이 나왔으며,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마가가 이 두 개의 복음서 가운데 겹치는 부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주장한다. 블랙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긴 끝에 대한 또 다른 시나리오

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기리면서 수난과 죽음 뒤에 나오는 부분을 포함한 책을 쓰기로 작정하였고, 따라서 긴 끝은 마가복음이 1차로 저술된 이후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가가 보강하여 붙인 보강물이라는 것이다. 즉, 긴 끝은 원래 마가복음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동일 저자가 후대에 보강하여 첨가한 부분이며, 따라서 블랙은 긴 끝이 정통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5. 문학적 시각에서의 비평

복은 위의 네 의견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비평을 하고 있다. 그가 취하는 입장은 16:8이 원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끝이라는 왈리스와 같은 입장이다. 그는 만일 이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차선책으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유실설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학자들이 사용하는 외부적인 증거와 내부적인 증거들의 접근 방식을 각각 점검하면서 비판한다. 외부적인 증거에 대해서 그는 모든 방식의 끝에 대해 팽팽한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8절에서 끝나는 증거에 좀 더 기대고 있다. 그러나 이 외부적 증거 역시 보는 사람의 입장과 시각의 영향에 따른 다른 해석과 결론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한계를 인정하며, 내부적 증거에 보다 치중해 비평한다.

내부적 증거가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답을 찾는 보다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문학 비평적 차원에서 마가복음의 끝을 접근한다.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독자들에게서 나름대로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8절에서 끝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긴 끝이나 짧은 끝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하면서 8절의 의도된 끝을 주장한다. 그는 처음 세 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마지막 블랙의 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3. 책에 대한 논평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논의라는 다양하고도 뜨거운 논쟁을 기대할 주제를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먼저 이 책에서 다루는 논쟁이 이 주제를 모두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증거들과 논지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 특별히 새로운 주장이나 사고의 발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기대를 저버린다. 마가복음 끝에 대한 논지는 크게 16:8에서 끝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양분되며, 후자의 입장은 로빈슨과 블랙의 입장, 엘리엇과 같이 유실설의 입장, 절필설, 삭제설 등으로 나뉜다. 또한 16:8에서의 의도된 끝에 대한 입장도 방법론에 따라 더욱 확장될 수 있다(예를 들면 문학비평적 시각).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모두 다루고 있지 않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의 모음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책으로 만든다면 좀 더 많은 입장들을 포함시켜서 다양성의 풍성함과 더불어 보다 뜨거운 논쟁의 불길을 태우고, 이로써 학도들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베푸는 것이 좋았겠다 싶다.

이 책에서는 긴 끝의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심지어 로빈슨처럼 긴 끝의 마가복음(아마 그의 주장대로라면 *Codex Alexandrinus*와 같은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된다)도 다루는데, 짧은 끝과 프리어 로기온은 부분적으로 논증의 예로 사용될 뿐, 이 끝들만을 포함한 사본들을 로빈슨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 *Codex Bobbiensis*가 그러하고 후자는 *Codex Washingtonianus*가 그러하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W 사본의 경우 후대로 밀려나지만 짧은 끝의 경우는 긴 끝에 비해서 그리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짧은 끝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동안 없었지만-로빈슨과 같은 시도를, 혹은 제안이나 언급이라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 글 편집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추측컨대 8절로 끝날 것인지 20절로 끝날 것인지 먼저 싸움을 붙이고, 유실설과 보완설로 채워 넣는 모양새로 구성을 삼은 듯한데,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각 글의 실제 내용을 보면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볼 때 차라리 엘리엇의 글과 로빈슨의 글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또한 네 번째로 들어간 블랙의 글은 흥미롭고 재미는 있으나 학문적인 논증이 아쉬웠다. 보다 탄탄한 논증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증명보다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제안한 글이며, 마태 우선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 1층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꼴이 되기 쉽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의 주요 논지에 해당하는 긴 끝이 마가복음의 보완적 저술로서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객관적 증거나 논리보다는 다소 황당하고 비약적 논리의 추측성 시나리오로 나타난다. 아마도 그래서 복이 총평을 하면서 블랙을 무시하는 듯 그의 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인가?

이 책의 글들은 특별하거나 새로운 이론이나 논지가 부족하기에 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보고 다소 실망할 수 있겠다. 또한 8절의 끝에 대한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기에 긴 끝, 짧은 끝, 프리어 로기온에 대한 보다 깊고 다른 접근 방식의 연구를 하고 싶다면 다른 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책은 마가복음의 끝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이 책의 글들은 분량도 그리 길지 않고 서로 상충하는 논지 전개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 주제로 수업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찾아볼 책으로는 권할 만하다.

* 접수일 2009년 8월 16일, 수정일 2009년 8월 2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3일